

천문·기상학과



천문·기상학과는 천문(우주)과학과, 대기과학과 등으로 주로 4년제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천문(우주)학과에서는 수학과 물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우주를 구성하는 태양계, 항성, 성운, 성단, 우리은하와 외부은하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측하고, 지구와 태양계의 운동, 별의 일생, 은하의 구조와 특성, 우주의 생성과 진화를 연구하고 교육합니다. 대기과학과에서는 대기의 상태, 각종 규모의 대기운동과 대기현상, 그리고 기후변화 등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교육합니다. 최신 관측 장비를 이용하여 대기의 상태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미래의 대기 상태를 예측하며 기후변화, 대기오염, 오존층 파괴 등과 같은 환경변화도 연구하고 교육합니다.

적성 및 흥미



기본적으로 수학, 물리학, 지구과학 등의 기초 과학과목에 적성과 흥미가 있어야 합니다. 천문·우주과학은 평소 별의 원리와 성질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적합하고, 별을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는 꼼꼼한 성격도 필요합니다. 천문계산을 위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므로 소프트웨어 사용법, 수치계산, 수치적분, 프로그래밍 등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관련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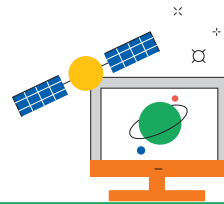


- 대기환경과학전공
- 천문·우주학과
- 천문·대기과학전공

취득자격



- 국가자격 기상기사, 대기환경기사, 소음진동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등



진출직업



- 공무원(기상직)
- 공무원(환경직)
- 온실가스인증심사원

사무



- 과학커뮤니케이터
- 방과후교사 (천문·드론 등)
- 문리학원 강사

교육



- 방송기자
- 사진기자
- 신문기자
- 잡지기자
- 촬영기자
- 기상캐스터

방송/기자



- 천문 및 기상학연구원
- 대기환경기술자
- 환경공학기술자
- 자연과학 시험원
- 기후변화전문가
- 기상컨설턴트
- 인공위성개발원
- 환경컨설턴트
- 온실가스관리컨설턴트
- 항공우주공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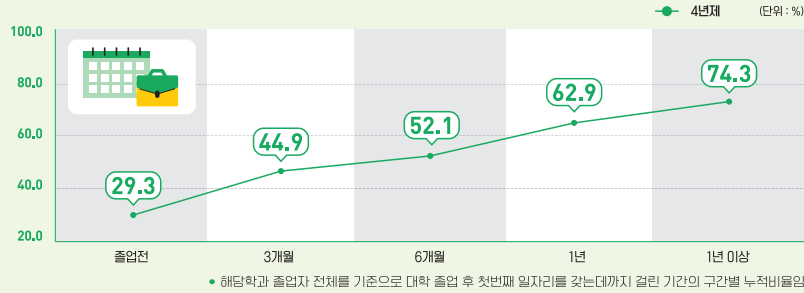
연구/개발

통계로 보는 학과별 진출직업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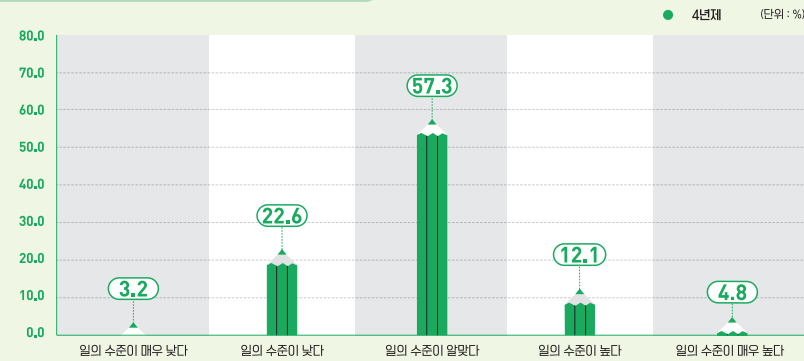
대학졸업 후 첫 일자리 진출직업(상위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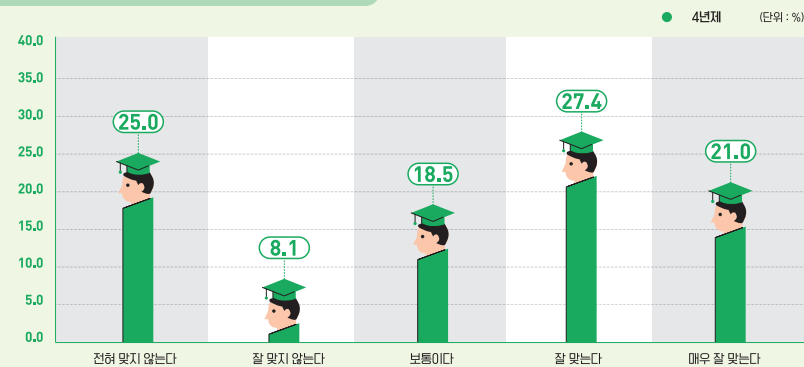
첫 일자리 임직 소요 기간(누적)



첫 일자리 업무수준과 교육수준의 일치 정도



첫 일자리 업무내용과 전공과의 일치 정도



- 『통계로 보는 학과별 진출직업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정부공식통계 제327004호)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매해 전년도 2월 및 전전년도 8월 대학 졸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함(EX, 2019년도 조사시 2018년 2월 및 2017년 8월 졸업자를 조사대상으로 함).
 - 2014년부터 2018년 전문대 및 4년제, 교육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워크넷 학과정보에서 제공하는 131개 학과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
 - 전체 표본 가운데 매해 조사기준일(9월 1일) 당시 만35세 미만인 경우만 분석하였음.
- 첫 일자리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가 표집틀로 사용하는 교육개발원 취업통계의 졸업년월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대학을 졸업한 이후 처음으로 가진 일자리를 말함.
- 본 자료에 사용된 첫 일자리 진출직업의 직업분류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8년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세분류 기준임.
- 첫 일자리 임직소요기간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조사 기준대학을 졸업 한 이후 첫 일자리에 입직한 시기까지를 개월로 환산하여 구간화함.
- 첫 일자리의 업무수준-교육수준 일치 정도, 업무내용-전공(주전공)과의 일치 정도는 기준 대학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업무 수준과 내용을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답한 내용임.